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현 정부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집권 초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고용불안정, 사회양극화, 가족해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증가 등 사회불안정 요인의 확대를 심화시켰고, 정부는 저소득 무담보소액대출사업, 긴급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을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를 최소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와 ‘친서민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였다. 능동적 복지는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시혜적·사후적 복지를 지양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성장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구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에 의한 성장복지를 강조한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2010년은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의 움직임과 함께 새롭게 부각된 남유럽 경제위기로 인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논의가 요구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및 노후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었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의 재정 상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다양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체 복지 예산의 30%가 기초생활 수급자 153만 가구에 사용될 정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절대적 빈곤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의 필요조건을 보장하게 되었지만, 빈곤 탈출 효과는 크지 않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발생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촉진을 위하여 장애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지급 대상과 지급액과 관련하여 많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성 인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향후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보건복지 근간의 불안정성이 예측되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의 고도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노인 인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장체계 강화가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본 보건복지포럼에서는 이러한 쟁점들과 관

련하여 집권 후반기 보건복지 분야별 국정운영에 대한 제안이 수록되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법인, 응급의료, 해외환자 유치,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식품안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재구조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기초보장 분야에서는 근로빈곤층 대책, 육구별 급여,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안전, 장애인연금 및 요양보장, 다문화가정, 저출산고령사회 분야에서는 보육확대, 일가정양립, 노인장기요양에 대해 심층적인 현안분석과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우리 사회 보건복지분야의 환경변화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건복지정책 결정권자, 실무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모두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국민의 건강,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건복지포럼 작업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바쁜 중에도 정기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 연구자들과 본 포럼이 발행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포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보건복지**